

# 고양페이 문제와 개선방안

## ▲ 고양페이 탄생배경과 문제점

### □ 고양페이 등 지역페이 탄생배경

-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입한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하려는 정책
- 경기페이, 고양페이는 지원 정책자금의 지역 내 소비제한으로 지역 소비 진작책 (특정지역 정치적 목적)

### □ 문제점

- 고양페이 인센티브 모두 세금, 세금 사용 효익 의문, 우선순위 타당성 결여
- 지역 소상공인 소비 진작 효과 일시적, 승수효과 부정적(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30개 지자체 지역페이 사용으로 '경제파편화', 오히려 외부인 소비 위축
- 고양페이는 카드 형태로 사용수단 한정으로 사용 불편
- 기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등 금융결제 시장 왜곡
- 금융결제 사업은 지자체가 할 사업영역 분명히 아님
- 고양페이는 일반회사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경기페이'의 일부일 뿐

## ▲ 고양페이 현황

- 2019년 4월부터 운영, 가입자 수 602,209명
- 충전·사용·잔액 금액 - 2019년 4월 ~ 2021년 5월 26일, (단위/원)

구분	충전금액	사용금액	잔액
일반발행금	243,233,064,153	227,653,244,523	15,074,990,013
정책발행금	73,037,196,058	68,788,062,712	4,249,062,712
지급인센티브(세금)	21,507,335,845	20,092,685,964	1,382,822,928

※출처 : 고양시 지역화폐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7)

## ▲ 개선방안

- 재정자립도 확보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세금지출) 감축 필요
  
- 사용 방법 확대로 편의성 제고
  - 현재의 단순 카드 사용에서 '제로페이'사의 앱이나 QR방식으로 확대
  
- 고양시 통합포털 앱으로 기능 확대
  - 고양페이 가입자 60만 명을 활용한 고양시 정보 포털 앱으로 기능 향상
  - **고양페이로 발생하는 빅데이터 활용도 많음(고양시 경제자산)**
  - 각종 정책자금 바우처 기능(특정 정책자금을 사용 특정 가능)
  - 예) 무상급식 지원 고양 페이 지급 (편의점 품목 제한 기능 등)
  
- 지역 상생을 위한 사용처 확대
  - 예) 택시 시설(콘도 등) 이용하는 고양시민에게 지역 할인 동등 대우 등
  
- 고양페이 조직 신설 필요
  - 고양페이 가입자 60만 명 데이터 활용, 시정 활용
  - 통합 포털 및 바우처 등 부가 기능 독자적·탄력적 운영
  - 향후 경기페이(코나아이)와 별개로 고양특례시 독자적 운영

## ▲ 참고 사항

- 앱과 QR방식 사용방법 확대 및 통합 앱 구축
  - 앱과 QR방식은 경기페이와 별도로 '제로페이'사 연계 사용해야 함
  - '제로페이' 사(윤완수 대표)와 면담 결과, 우선 고양페이 주관회사인 '경기페이(코나아이)'에 추가 요청 협의하여 조건 비교 검토 필요함
  
- 서울페이는 '경기페이'와 유사한 '제로페이'사 배제하고 2022년부터 신한카드와 카카오페이로 교체 함, 페이 기능만 고려하면 금융카드사로 역할 이전이 옳으나, 대량 가입자의 커뮤니티, 바우처 기능 확대, 빅데이터 활용을 참작하면 통합포털 앱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타당함. -끝-